죽음, 삶을 비추는 마지막 거울



한 권으로 읽는 인간의 죽음
최준식 지음
한울
2만7000원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죽음은 인간이 가장 오래 사유해 온 주제이자, 여전히 해답 없는 수수께끼다. 종교와 철학은 죽음을 '삶의 그림자'로, 혹은 '해탈의 문'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현대의 학문과 과학은 이제 이 오래된 물음을 새로운 언어로 탐구하기 시작했다.

최근 출간된 두 권의 책 〈한 권으로 읽는 인간의 죽음〉과 〈과학이 주목하는 죽음 이후의 일들〉은 각각 죽음학과 과학의 시선으로 '죽음'을 사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죽음학 아닌 생사학

〈한 권으로 읽는 인간의 죽음〉의 저자 최준식 한국죽음학회장은 "죽음학은 죽음을 공부하지만, 사실은 삶을 위한 학문"이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죽음학은 '생사학(生死學)' 혹은 '사생학(死生學)'으로, 삶과 죽음을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본다. 저자는 "죽음이 삶을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없듯 죽음을 공부하는 것은 곧 삶을 성찰하는 일"이라며 "제대로 된 죽음 공부는 결국 더 충실한 삶으로 이끈다"고 강조한다.

책은 저자가 BTN불교TV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1장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다룬다.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며 임종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별의 슬픔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등을 설명하는 '임종 안내 지침'이다.

2장은 '사후 세계 안내서'로 읽힌다. 영혼과 사후 세계를 긍정하는 세계 각국의 전통과 종교적 사유를 통해 '근사체험', '사후통신' 같은 낯선 개념을 소개한다. 특히 사후 세계, 카르마 법칙, 환생 등의 주제를 학문적으로 풀어낸 점이 눈길을 끈다.

죽음학의 시선에서 보면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저자는 "죽음과 삶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가야 전체가 된다"며 죽음을 직면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전체적인 삶의 얼개를 그릴 수 있다고 말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無常)과 연기(緣起)의 이치와 같다. 모든 존재는 생멸의 순환 속에서 서로 기대어 존재하기에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를 의미한다.

윤회로 성찰하는 존재의 본질

김성구 교수의 〈과학이 주목하는 죽음 이후의 일들〉은 임사체험과 윤회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의미를 밝히는 책이다. 저자는 서울대학교와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이론물리학을 공부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불교에 관심이 깊어 은퇴 후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과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경남 함양에 약천사를 건립하고 공부와 수행을 하고 있다.

죽음 직전의 의식 경험을 일컫는 임사체험은 그간 정통 과학에서 공상이나 허구로 취급받고 그에 관한 연구는 '사이비 과학'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저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임사체험자, 전생 기억자의 경험에 주목하고 관련 사례와 연구를 과학적 방법론으로 검토한다. 종교적 신앙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사후 세계를 과학적 언어로 재조명한 것이다.

저자는 임사체험과 윤회에 관한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두 전문가 집단의 주장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질문을 불교의 무아 개념과 양자 역학의 세계관을 통해 고찰한다. 불교에서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를 부정하지만, 인과적 흐름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으로서의 나'는 인정한다. 그리고 윤회하는 '나' 역시 동일성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연속성으로서의 '나'를 말한다. 이는 양자 역학의 세계관과도 맞닿아 있다. 저자는 "윤회는 단순한 생명 순환이 아니라 자신의 업(業)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구조"라고 해석한다. 윤회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삶 전체에 대한 도덕적 자각을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과학이 주목하는 죽음 이후의 일들
김성구 지음
불광출판사
2만3000원

죽음은 '끝' 아닌 '통찰의 문'

'죽음'을 말하는 두 책은 한 지점에서 만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통찰의 문이라는 점이다. 죽음을 회피하거나 공포로만 대하는 태도는 결국 삶 자체를 왜곡한다. 반대로 죽음을 깊이 공부하고 직시할 때, 우리는 생의 본질을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다.

죽음을 공부하는 일은 '지금 여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일이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다시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된다.

"모든 것은 생멸하지만, 법(法)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교적 사유의 문학적 형상화



그냥 해 보는 말
홍사성 시집
인북스 / 1만2000원

'불교와 문학'에 대한 응답

"진흙탕 속 연꽃 피우는 삶"

"모란은 조용히 / 장미는 때가 돼야 / 연꽃은 기다렸다가 / 구절초는 저 혼자 핍니다 // 필 때는 말없이 피었다가 / 질 때는 그냥 집니다."

–시 '꽃밭 화엄경' 중에서

불교언론인이자 시인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의 다섯 번째 시집이자 인북스 시인선 첫 번째 시집이다. 불교와 문학을 함께 공부해 온 시인은 '시인의 뒷말-불교로 쓴 시, 시로 쓴 불교'에서 "불교를 앞세우면 문학이 무거워지고 문학을 앞세우면 불교가 가벼워지기 십상"이라는 고충을 털어놓으며 "이 시집은 그 난제에 대한 나름의 응답이자 실험"이라고 말한다.

오랜 세월 불교의 품 안에서 살아온 시인은 삶 속에서 체득한 깨달음을 자연과 사물, 사람들의 모습에 투영한다. "차면 얼고 / 뜨거우면 끓습니다 / 둥근 잔에서는 둥글고 / 네모 그릇에서는 네모가 됩니다('나는 물입니다' 중에서)"처럼 변하는 모습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물의 속성을 통해 삶의 지혜를 노래한다. 또 "몸은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기운이 없다"며 "언젠가는 나도 그럴 줄 알긴 알았는데 // 정말로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만각' 중에서)"고 세월의 흐름을 담담히 토로하면서도 "가게 되면 가리라 / 오게 되면 오리라 // 애태움, / 더는 그런 데 목매지 않으리라('선객' 중에서)"고 읊조리며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시인은 불교적 사유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75편의 시를 통해 "불교적 삶이란 세속과 유리된 삶이 아니라, 일상의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삶이어야 한다"는 점과 "불교가 중요시하는 바는 결국 인간과 삶, 그 자체"임을 일러 준다.

신경림 시인은 그의 작품에 대해 "부처님 앞에 무료하게 앉았을 때처럼 편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시들"이라며 "그러면서도 한 대목 한 구절 그냥 지나가지 않고 번쩍 정신 나게도 만들고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한다"고 평한 바 있다.

시인은 2007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해 시집 〈내년에 사는 法〉, 〈터널을 지나며〉, 〈고마운 아침〉을 펴냈고 2023년 〈샹그릴라를 찾아서〉로 제55회 한국시인협회상을 수상했다.

여수령 기자

부처님 말씀 따라가는 수행법



월호 스님의 게송 명상
월호 스님 지음
맑은소리 맑은나라 / 1만8000원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사리자는 길에서 만난 앗싸지 존자의 게송을 듣고 수다원과를 얻어 곧바로 출가했고, 급고독장자의 아들 깔라는 용돈을 받으려 게송을 외우다 그 의미를 터득해 수다원과를 얻었다. 수다원(須陀洹)은 '성스러운 법의 흐름에 들어선 이'라는 뜻으로, 욕계·색계·무색계의 견혹(見惑)을 끊은 성자를 말한다. 정말 게송을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수다원과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일까?

〈월호 스님의 게송 명상〉은 월호 스님(행불선원장)이 '게송을 듣고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안내하는 책이다. 스님은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라. 해탈의 인(因)은 명상이요, 해탈의 연(緣)은 게송이다. 명상을 하며 게송을 듣거나, 게송을 듣고 명상을 하는 것이 해탈의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책은 부처님이 아들 라훌라에게 직접 전한 호흡명상법으로 문을 연다.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두고, 코밑 허공에 모든 시비분별을 맡기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이다. 월호 스님은 "명상의 시작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들숨과 날숨을 '관(觀)'하는 일"이라 말한다. 각 장은 짧은 게송 한 편과 그 뜻을 풀어 주는 설명, 명상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조사선·묵조선·간화선·정토선 등 여러 수행 전통과 참선법을 소개함으로써 "참선은 수행자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넘어, 게송 한 구절로도 일상의 수행을 이어갈 수 있음을 알려준다.

호흡명상부터 참선법까지 안내

"게송 명상은 해탈의 지름길"

책의 마지막 장에는 '극락 가이드'라는 독특한 개념이 등장한다.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세음·대세지보살 등 극락으로 인도하는 보살과 원효·의상 대사 등 역대 조사들의 일화를 통해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사후 극락에 태어나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

월호 스님은 "중생 제도의 방편으로 장엄된 극락정토를 무시하면 공(空)에 떨어지고,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면 상(相)에 떨어진다"며 지혜와 방편, 공과 상, 이론과 실천의 균형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임을 일깨운다.

여수령 기자

"불교는 지금 나를 깨우는 새로운 언어다!"

'절집의 숨은 고수' 고광 스님이 40년 탐구 끝에 되찾은 진짜 '붓다의 말'
알면 알수록 수수께끼 같은 삶이 이해된다!

새롭게 다가오는 붓다의 말,
더욱 선명해지는 삶의 지혜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지음
430쪽 | 24,000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결국은 살아진다!

계절을 건너듯 다정히, 삶의 무게를 다독이는 원영 스님 산문집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

울어도 쓰러져도,
다시 살아지게 하는
힘에 관하여

원영 지음
200쪽 | 18,000원



오늘도 어제처럼
웃음이 사라진 하루였나요?
떠밀려가듯 무기력한 나날이
버겁게만 느껴지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루를 버티는 힘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는 힘입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